

# 지역 현역의원들 선거운동 딜레마

물같이 여론 높아 명함 등에 '현역' 표현 기피  
민생현안 우선... 정권교체 사용 놓고도 고심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물같이' 여론 탓에 '현역 의원' 표현을 기피하는 것은 기본이고, 꽉꽉해진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정권교체·이명박 심판' 구호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5일 선관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9명 중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김희석·유선호 의원을 제외한 14명의 현역 의원이 과거와 달리 이미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우윤근(광양), 주승용(여수 을), 박상천(고흥·보성) 의원 등 3명만 아직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

았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역 의원 중 일부는 선관위에 제출한 경력사항에 아예 혼인인 18대 국회의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역 물같이' 여론이 높아지면서 현역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김성곤(여수 갑) 의원은 혼자에 국회 여수바람회 사후 활동 소위원회 직함을 사용하고 있고, 이윤석(무안·신안)은 원내 부대표와 지역 위원장 직함을 옮겼다. 김영진(광주 서구 을)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 초대 농림부장관과 5·18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장으로 경력으로 사용했다.

박상천(고흥·보성) 의원 등 3명만 아직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

하지만, 지역 유권자들이 이러한 정치현안보다는 민생현안 해결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점을 파악한 현역 의원 측에서는 지역 정책 공약을 들리는 등 지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구나 상대 후보들이 그동안 지역구 밀바다 민심을 파고들면서 각종 생활민원 등을 행운으로 만큼 일부 현역 의원들은 뒤늦게 지역민들의 각종 생활민원을 쟁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총선 이슈는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신판을 위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인데도 광주·전남지역은 '현역 물같이' 여론이 높아진 탓에 현역 의원들은 이러한 정치현안보다는 민생현안 정책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특히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종 민생현안 문제 및 생활민원이 꽉주며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인지, 구의원 선거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소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일 오후 광주 북구 시립박물관 앞마당에서 열린 '2012 임진년 빛고을 정월대보름 한미당행사'에서 시민들이 달집을 태우며 올 한해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대보름 달집 태우기

고 있다.



당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100% 당원 직접투표로 후보를 선출했으며, 경선 지역이었던 광산구는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선출했다.

광주지역 8개 선거구 중 후보 선출을 아직 못한 서구 갑과 광산 갑, 동구 등 3개 선거구 후보는 2차 당내 선출 과정을 거쳐 선출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통합진보 광주시당

### 총선후보 5명 확정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19대 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광주지역 5개 선거구 후보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출된 후보는 ▲어병윤(서구 을) ▲이민원(남구) ▲이채연(북구 을) ▲윤민호(북구 을) ▲황차은(광산 을) 후보 등 5명이다. 통합진보

## 여수 시·도의원 보선 후보

### 100% 시민여론조사로 선출

민주통합당이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여수지역 시·도의원 보궐 선거의 후보자 공천을 100% 시민여론조사로 선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5일 민주통합당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면심사를 해 34명으로 압축한 다음 다음 달 15일께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당 후보를 공천할 방침이다.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는 1차 첫오프를 통과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앞서 공개 토론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100% 시민여론조사로 공천 방식에 반발해 '무공천'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여수

갑)은 지난 달 30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시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투명하게 공천을 하겠다"며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무공천은 당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승용의원(여수 을)도 "어떻게 공천을 하더라도 잡음이 없을 수 없지만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도록 경선과정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현섭 전 시장 비리 사건에 연루된 민주통합당 시·도의원은 총 11명으로 이 가운데 9명(도의원 4명, 시의원 5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퇴했고 나머지 2명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광주 등 군공항 이전'

### 4·11 총선 공약 제안

남경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광주 등 도심 군공항 이전 대책 수립, 사병월급 현실화, 초·중·고생 아침급식 등 3가지로 4·11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남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적으로 20개 정도의 군공항이 도심이나 인근 지역에 배치돼 있고 이로 인해 주변의 1000만여명의 주민은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 이전, 폐지 후 구조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광주공항과 성남공항·수원공항·대구공항·전주공항 등을 예시했다.

그는 또 국군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총선 후보 지지선언 경쟁

## 광주 일부 후보들 지지단체·인사 놓고 진실공방도

민주통합당 공천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광주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지지 선언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리턴매치'를 벌이고 있는 일부 후보들이 지지단체 및 지지인사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지 선언을 반박하는 등 곳곳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송병태 전 광주 광산구청장을 5일 광주 광산 갑에 출마를 선언한 전갑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 후보는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것은 물론 신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철학을 실천해 폭넓은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 출마해 광산구의 변화를 꾀하

고 싶었으나, 고민을 거듭한 끝에 대안 세력을 통해 정치와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고 전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예비후보 측은 '구태정치'를 거론하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 측은 성명을 통해 "광산 갑 경선구도가 '깨끗한 정치세력' 대 '구태 정치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여론을 확연히 보여준 것"이라고 송 전 청장의 지지선언을 펼쳤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양재영씨는 전직 회장으로 밝혀지는 등 지지 선언 사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대 후보인 박주선 의원 측은 민주당 동구 13개 동 협의회 회장단의 반박 성명을 통해 "광주 동구 의정동 우회와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협의회가 양 후보를 지지선언하기로 했다는

"박종규 동구 의정동우회 회원과 양재영 민주 동구협의회 회장 등 13개 동 협의회 회장단이 낙후된 동구를 재건하고 호남정치 1번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겸증된 일꾼이 필요하다며 양일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 측은 정동년 전 5·18 광주 민중항쟁 연합 상임의장, 안성례 전 오월 어머니집 광장, 이 강 김대중·노무현 기념공원 운영위원장, 정용화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공동대표 등 지지 선언 명단을 공개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통합에 참여했던 '광주 혁신과 통합'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통합당의 창당당신인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진정한 통합과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광주 서구를 이상갑 후보와 남구 박시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여수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사 업 명	(주)혜주주택전시관 및 사옥건축공사
사 업 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 지 면적	2,411.20m <sup>2</sup> (729.39평)
용 도 지 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 폐 율	59.53%(법정 : 60%)
용적률	478.73%(법정 : 480%)
규 모	지하 0층 지상 6층
건 축 면적	1,435.47m <sup>2</sup> (434.23평)
주 차 대 수	80대(법정 72대) :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승용승강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에스컬레이터	상, 하 전용왕복 에스컬레이터 시공 : 1층~7층까지 설치
용 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체육시설 및 업무시설

### 종별 면적 개요

총별	면적	평	총 고	용 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장부가격(감정가)	14,000,000,000원
매 매 예 정 가격	12,000,000,000원
현 공 정 을	약 85% 진행
적 용 가능 용 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휴트니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 시설 병원 등 최대층고 7.5m으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군 도입 가능

문의처 : 010-3625-6984

##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 구 분

#### 광주여자대학교(14기)

#### 광주교육대학교(제5기)

###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2012. 3. 9(금) 09:10(고급반)

#### 오후반: 2012. 3. 9(금) 14:10(초급반)

## &lt;h4